

백제의  
정신을 담은  
충남 도청사

The Great Hill



2013 대한민국녹색건축대전 대상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최창섭**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Site Plan

### 백제의 정신을 담은 도청사 'The Great Hill'

충청남도 도 본청과 의회청사 건축은 충청남도의 장기발전 차원에서 진행 중인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21세기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도시모델의 제시와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작됐다.

충청남도의 야트막한 산들과 넓고 푸른 평야, 그 사이를 흐르는 아름다운 금강을 모티브로 건립돼 금강 유역에 있는 산들이 모여 하나의 산봉우리를 이루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풍부한 자연을 건물까지 그대로 연장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도민에게 활짝 열린 복합문화공간인 백제물을 계획해 청사의 중심으로 행정타운 전체가 하나의 공원이 되는 그린시티를 계획했다.



금강의 흐름을 닮은 입체 보행가로를 통해  
기능상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전의 공공청사들이 권위와 상징성에 주목해 대지의 흐름과는 상반되는 ‘비대환’ 청사들을 지었던 것에 반해 충청남도 도 본청과 의회청사는 본관·의회·별관·문화센터 등 도청의 핵심 시설들을 기능별로 분동해 각각의 독립성과 최적의 업무시스템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각 동은 금강의 흐름을 닮은 입체 보행가로 ‘백제물’을 통해 기능상 유기적으로 연계돼 ‘낮지만 알찬’ 건물들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청사를 구현했다.

충청남도 도 본청과 의회청사의 4개 건물들은 백제의 역사적 흐름을 담아 각각 한성, 웅진, 사비 등 백제의 시대들과 현재의 충남을 상징하고 있다.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외관은 백제의 문화를 상징화해 표현했다.

또 각각의 시설물과 백제물의 바닥 패턴, 로비계단에 적용된 백제 왕관 장식, 선큰가든 벽면에 백제 성곽 모양의 보강 블록 적용 등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전체에 백제의 흔적들을 담아냈다.



설계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주 충청남도도청

대지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

대지면적 140,000.00㎡

건축면적 22,364.90㎡

연면적 104,993.40㎡

건폐율 15.97%

용적률 41.38%

규모 본청 - 지하2층, 지상7층

의회 - 지하2층, 지상5층

별관 - 지하2층, 지상3층

문예회관 - 지하2층,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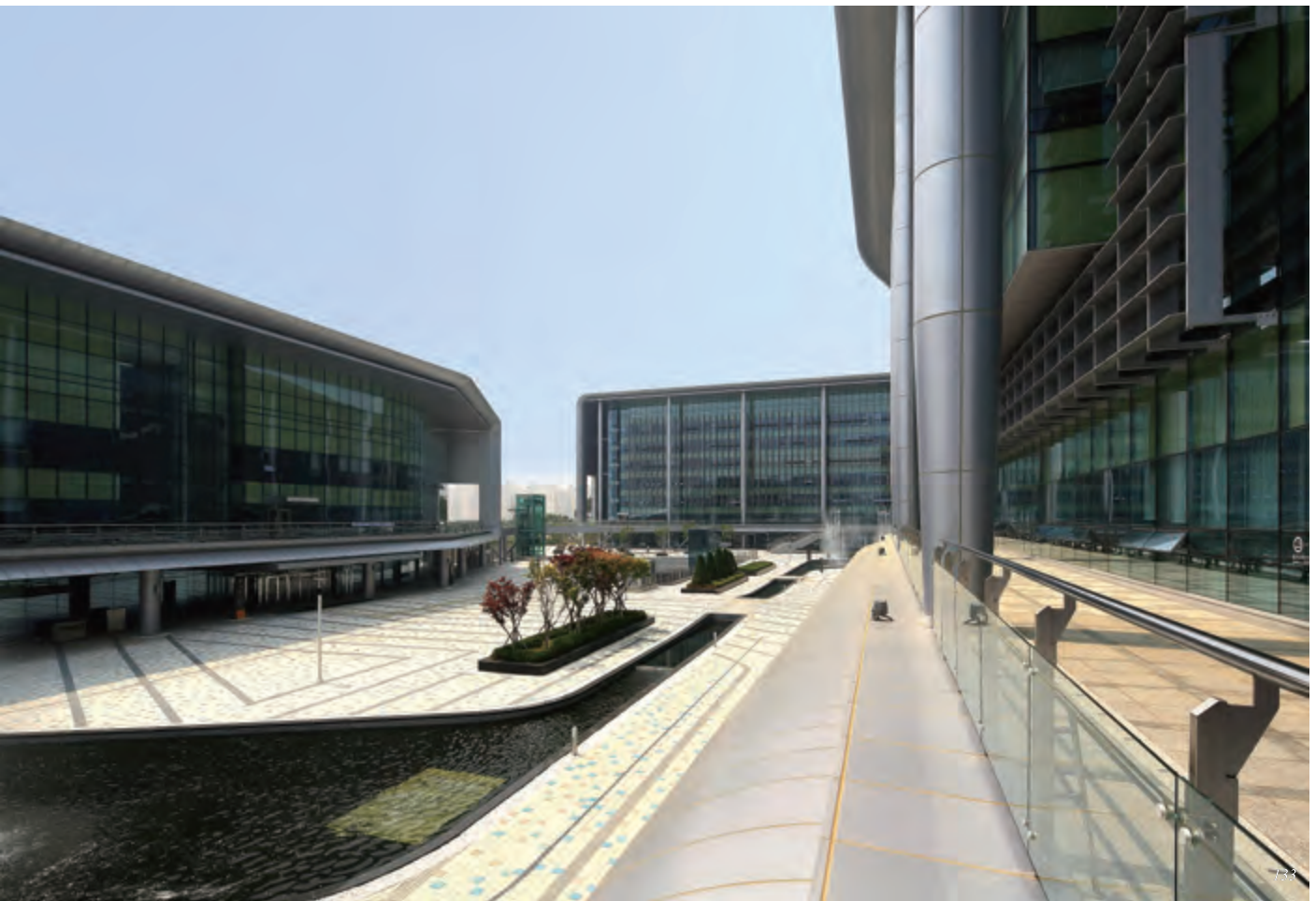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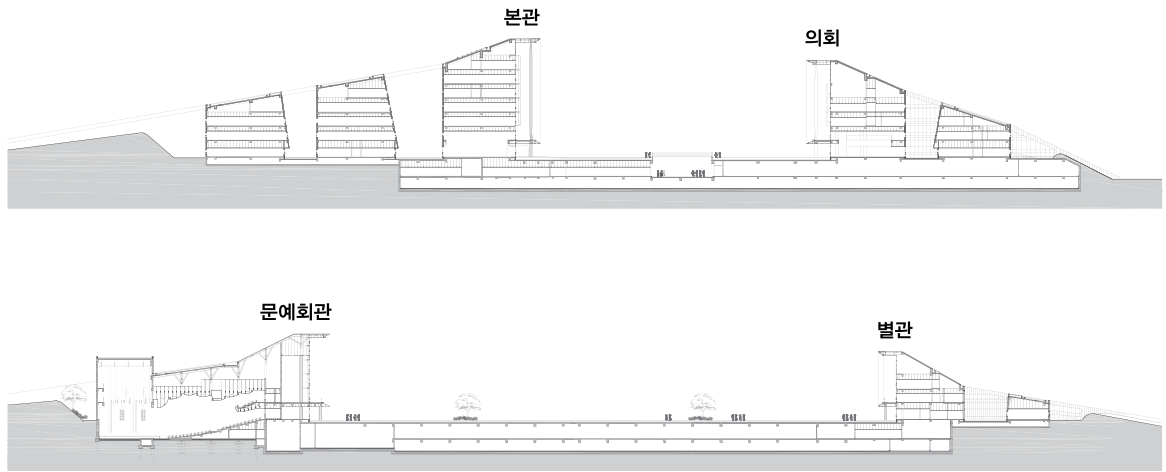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문예회관: SRC+철골트러스조)

시공사 (주)계룡건설











건축이 곧 브랜드 Iconic Hill  
자연과 호흡하는 Green Hill  
열린복합문화공간 Human Hill  
최적의 업무환경 Intelligent Hill

충남도청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건축적 방향은

첫째, 백제시대를 상징하고 충남의 금강과 자연지형을 형상화해 건축이 곧 도시 브랜드가 되는 ‘Iconic Hill’

둘째, 자연을 품고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 청사인 ‘Green Hill’

셋째, 청사 중앙을 가로지르는 백제물과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이 되는 문예회관을 통해 365일 도민에게 활짝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Human Hill’

넷째, 근무자들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Intelligent Hill’이다.

이러한 네 가지 건축방향을 통해 차별화된 외관과 자연, 최적의 업무환경을 통해 건물 자체가 관광명소가 되는 청사, 저탄소 녹색성장의 표본이 되는 청사로 충남도청사는 도민들이 하나 되는 충남의 상징이 될 것이다.

본관은 용봉산을 뒤로하고 전면에 수공간을 계획해 배산임수의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상징성과 중심성을 갖도록 했고, 각 실·국단위 오픈플랜 업무공간 사이에 4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중정계획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본관 및 의회의 로비는  
한국의 누정(樓亭)을 재해석해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의회는 주 진입 도로변에 배치해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상징성을 부여하고, 각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했다. 의회 업무공간, 의정공간, 본회의 공간을 층별로 분리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했으며 민원인·의원·직원의 동선을 각각 분리해 의회만의 독립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본관 및 의회의 로비는 한국의 누정(樓亭)을 재해석해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건축 자체 혹은 공간 자체를 드러내기보다 주변 자연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 즉 비워져 있기에 건축적 공간이 된다는 의미와 함께 삶이 담기고 주변과의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의회 본회의장 내부는 흐름의 연속성이 공간 안에서 형태 흐름으로 표현돼 통일성을 강조하고, 프로그램과 유연한 곡선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상호 연계돼 효율적이고 연속된 공간으로 의정회의 등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별관은 본관 앞쪽에 독립 배치해 도의 각 유관기관과 보육시설을 계획했다.

문예회관은 본관 좌측에 배치해 각종 행사 때 본관과 인접도로에 서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했다. 특히 리셉션홀과 연계해 각종 연회와 파티 등 부속행사가 가능하며, 다양한 공연과 세미나 등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으로 자리했다.

문예회관 내부는 수직 수평의 모듈을 반복해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시점의 각도에 따라 내부공간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의회 본회의장은 흐름의 연속성이 공간 안에서 형태 흐름으로 표현돼  
통일성을 강조하고, 유연한 곡선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상호 연계돼  
효율적이고 연속된 공간으로 의정회의 등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 ECO-Friendly Building

충청남도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해 건물을 자연의 일부로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자연적 재료인 돌이나 목재뿐 아니라 인공적인 재료라 하더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리나 캔버스 등처럼 사용과 관리가 쉽고, 재활용이 편한 재료를 주로 썼다. 또 내부와 외부의 단절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연적인 조망을 중요 포인트로 디자인에 반영했다. 분동된 4개의 건물은 각각의 상징적인

색을 가지고 백제 전통의 부드러움을 적용한 내부 공간 디자인을 적용했다.

충남도청사는 주변 산세의 흐름을 이어받아 대지에서 상승하는 듯한 형태로 표현했다.

상승하는 입면을 통해 '백제의 부활'과 '충남의 역동적 상승감'을 나타냈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백제의 문화를 상징화했다. 또 청사 전면을 글라스 커튼월로 장식, '투명한 열린 행정'의 의지를 보였다.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열어가는 충남의 새 도청은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친환경적 설계기법 적용이라는 큰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다.

기류 흐름과 방위별 일조를 고려해 조형과 건물의 위치를 결정했으며, 중정과 선근을 통해 밝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고성능 이중외피, 자연에너지와 대체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청사 및 업무시설 최초로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받고, 준공 시 본 인증을 획득했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등 모든 인증 절차를 완료했다.

충남도청사는 에너지절약 설비시스템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계획해 건물의 미적·기능적 요소를 함께 살렸다. 건물이라는 인공 환경을 최소의 에너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을 부여한 것이다. 특히 저에너지 저탄소 녹색청사를 구현해 환경부하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에 옥상 면적 25% 이상에 옥상녹화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태양열을 차단해 내부 온도를 낮추고 외부 단열 성능을 높임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충남도청사는 친환경 녹색 청사의 개념을 건축물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용자와 방문자 모두 환경 및 에너지의 소중함과 그 원리를 체험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켰다.





에코밸리, 신재생에너지 체험장 등 건물 자체가 '도시 속의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가족과 함께 환경 및 녹색기술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공청사가 바로 충청남도청사다.

모두 5년여간의 설계 및 시공 과정을 거쳐 완공된 충청남도 도 본청과 의회청사는 찬란했던 백제의 정신을 재현하고, 청사 주변의 풍부한 자연이 건물까지 그대로 연장돼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이제 도민에게 활짝 열린 청사로서 충청남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에서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녹색건축을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 청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예회관은  
수직 수평의 모듈을 반복해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